

GFEZ

Webzine 2012.06 Vol.12

GFEZ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되겠습니다!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Contents

03 Message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과 미래, GFEZ

05 Hot Issue

- 미국 기업인들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 세계여성경제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관심!
- 대만무역센터 관계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여수EXPO방문
- GFEZ, 여수엑스포를 투자유치 기회로 활용
- GFEZ, 미국 휴스턴에서 해양플랜트산업 투자유치 활동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단 운영

08 Invest in GFEZ

- 교육, 의료, 주거, 레저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신덕지구

10 Photo News

GFEZ 주요 포토뉴스

Gate of Asia,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

급성장 하는 동북아 시장에 대응하여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을 육성하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해운 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 인프라, 법령에 의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 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 상부한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선두주자입니다.

‘동북아 물류·신산업·관광허브’를 꿈꾸며 발걸음을 시작한 광양경제청이 지난 3월 개청 8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GFEZ는 121개 국내외 기업과 금액기준 109억불의 투자를 유치하는 눈부신 업적을 일궈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만 해도 3만명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양항의 물동량은 124만TEU에서 208만TEU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MPC율추진력 등 20억불 투자유치 목표 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전남 최초로 외국인학교를 유치 함으로써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이 경이적인 성과는 지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 입니다. 또한, 기업하시는 분들과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양경제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덕분에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및 경남 하동군 일원 85.2km²,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GFEZ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서 역동치고 있습니다. 아시아시피GFEZ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중·일 경제벨트를 잇는 중심에 있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여수공항, 철도와 고속도로 등 하늘과 땅, 바닷길이 이어져 있어 국제물류와 첨단산업, 관광 등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조강생산능력 세계 1위의 POSCO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 산업단지가 있어 연관산업을 유치하는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시작되는 여수세계박람회, 2013년 순천만국제자연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릴 예정으로 있어 외국자본 유치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중심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로 손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과 미래

GFEZ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김성진

울촌 I 산단 기업입주와 신대배후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이 GFEZ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기업은 물론 동일본 대지진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일본 기업 등 국내외 투자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으나, 산업용지 부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되어 지금까지 전체 20개 단지 중 12개 단지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8개 단지는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족한 산업용지의 조기 공급을 위해 세풍산단, 울촌 II 산단과 황금산단의 개발을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마무리되는 2020년이면 GFEZ는 250억 달러의 국내외 자본유치, 상주인구 12만명, 고용창출 24만명, 매출액 130조원, 물동량 1,200만TEU 처리능력을 가진 명실 상부한 세계 최상의 신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경제는 국내외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글로벌시장은 개방을 더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경쟁력 다툼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조기개발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성장과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시작해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청년 실업 해소, 그리고 무역 2조불 달성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GFEZ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2020 뉴 비전'으로 제시한 동북아 물류거점 등 5대 전략의 완성을 위한 광양경제청의 노력이 치열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의 경제특구는 물론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서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내부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재정지원, 제도개선,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협력, 발전비전의 수립과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 제시 등 GFEZ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GFEZ는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머지않은 날 이곳이 동북아의 경제 심장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꿈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 번 광양경제청의 개청 8주년을 축하드리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양경제청, 미국 기업인들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울촌산단, 광양항 시찰 및 여수EXPO 관람 등 박람회 기간 투자유치 총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월 2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팻 게인스(Pat Gaines, 보잉코리아 대표) 회장을 비롯한 18명의 주한 미국기업인들을 초청하여, 광양만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설립되어 약 2,000여 명의 회원을 둔 국내 최대의 외국상공회의소로 한-미 FTA 체결에도 큰 기여를 하였으며, 광양만권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광양경제청에서 운영이사회를 개최하고, 광양만권 투자설명회와 울촌산단, 광양항을 시찰 후 여수박람회장을 방문하여 미국관 및 기업관 등을 관람하였다.

나승병 투자유치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국내 최대의 외국투자기업 상공회의소에서 광양만권을 방문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최적의 투자환경을 갖춘 광양만권에 미국기업인들의 투자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오후에는 여수박람회장으로 이동, 미국관과 국내 기업관을 방문하였으며, 엑스포장의 다양한 시설과 첨단기술에 반하여 연신 원더풀을 외치며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더 많은 미국기업 임직원들의 엑스포 관람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월 17일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및 세종시지원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하여 GFEZ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수엑스포 기간 중 일본 오사카늘룽협회, 우쿠오카 중소기업경영자협회 등 외국 기업인들을 초청 광양만권 투자홍보와 엑스포 관람 등을 추진 투자유치 활동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개청 이후 지금까지 121개 기업으로부터 109억불에 달하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고, 이 중 외투 기업은 40개 기업에서 36억불을 투자해 활발한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여성경제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관심!



여수서 막 오른 '2012 세계여성경제인대회에서 투자설명회 가져

지난 5월 9일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린 세계여성경제인대회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설명회를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을 지향하는 광양만권에 여성경제인들의 투자를 희망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경제인 행사로 30개국 600여명의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의 산업 경쟁력과 뛰어난 투자환경 및 개발현황 등을 설명했다. 특히, 광양항을 중심으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뛰어난 물류 네트워크와 여수국가산단 및 포스코광양제철소를 포함한 광양만권의 풍부한 산업여건, 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인센티브 등은 여성기업인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외 여성기업인들과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세계여성경제인대회뿐만 아니라,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광양만권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관심 지역으로 부각되는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무역센터 관계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여수EXPO 방문



대만 물동량 증대 및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의 진행

대만정부를 대표하는 대만무역센터 관계자들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한다.

5월 12일에 개막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무역센터 관계자들은 이에 앞선 5월 1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투자유치 여건을 청취하고, 상호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광양항과 대만항 간의 물동량 교류 증대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방문은 2012년 2월부터 서울대만무역센터 관계자들과 대만 지역 물동량과 수출입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의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8월에 개최를 추진중인 ‘대만지역 물동량 및 물류업체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와 관련된 업무협의로도 진행하게 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나승병 투자유치본부장은 “대만 업체들이 미주와 유럽으로 향하는 물동량을 광양항 중심의 물류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해 한·미 FTA와 한·유럽 FTA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엑스포를 투자유치 기회로 활용



노르웨이 왕세자와 기업인 방문 이어져, 투자유치 기회로

지난 4월 “2012 여수 엑스포 GFEZ 투자유치단”을 발족시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행사 기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기업 관계자와 주요 VIP들을 대상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 매력과 성장 잠재력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5월 14일 노르웨이 왕세자 일행이 참여하는 제20차 한국-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를 시작으로, 이어서 노르웨이 선주협회, 노르웨이 선급(DNV), 한국선급 및 삼성중공업 등 글로벌 해양플랜트 유관기관·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호 협력방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당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덴마크 왕세자 내외 방한 행사 및 방위산업, 조선·해양, 청정에너지 등 7개 분야 세미나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전문가들이 참석해 덴마크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어 15일에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한국-노르웨이 비즈니스 협력 세미나에 참석해, 해양플랜트 산업의 투자유치 기회로 활용하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나승병 투자유치본부장은 “광양만권 인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여수엑스포를 투자유치의 좋은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향후 각국의 주요 인사와 유력 기업인들의 방문이 광양만권의 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GFEZ, 미국 휴스턴에서 해양플랜트산업 투자유치 활동



휴스턴 국제해양박람회(OTC 2012) 참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 휴스턴 릴라이언트 센터에서 개최 되는 국제해양박람회 (OTC 2012)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였다. 국제해양박람회(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1969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플랜트 산업박람회로, 약2천여개 기업, 5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나승병 투자유치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투자유치단은 순천시, 하동군 그리고 조선기자재업체가 참여하며, 미국 현지에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약 1백여 글로벌 해양플랜트기자재 및 엔지니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플랜트산업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박람회 개막일인 4월 30일 휴스턴 소재 웨스턴캘러리아에서 지식경제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해양플랜트산업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광양만권의 산업·투자 환경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및 개별기업 상담을 활동을 펼쳤다.

특히, 광양만권은 글로벌 철강기업인 포스코와 종합석유화학 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글로벌 물류항인 광양항이 연계해 있어, 플랜트 모듈제작과 원부자재 공급이 용이하고, 육로는 물론 해상 물류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해외 주요 해양 플랜트 연구소 유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 첨단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또한 미국 텍사스 A&M 대학 및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공과대학과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하동지구 갈사만에는 국비·지방비민간자본 등 공동투자 형태로 640억원을 투자해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를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해양플랜트산업 집적화를 꾀하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단 운영



“2012여수엑스포” 기간 투자유치 총력 경주

국내외 경제위기로 투자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투자유치와 연결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4월 2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를 위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5. 12.~ 8. 12.) 동안 “2012 여수EXPO GFEZ 투자유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단장으로 기업유치와 외국어통역, 산단개발, 홍보분야 등 3개반, 30명으로 구성되는 투자유치단은 방문단의 일정에 맞춰 산업지구별 4개 코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초청기업 및 투자자 상담, 개발지구 현장 안내, 그리고 외국기업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 16개팀, 300여 명의 외국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박람회 관람과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주한 미국 및 호주상공회의소, 재일한국인 기업연합회를 비롯한 일본 오사카능률협회, 일본상공회의소 회장단, 중국의 상해국제상회와 선전시 외투기업협회 회원사, 요녕성 잉커우시 소재 기업체 대표단 등 미주, 중국, 일본의 경제계 단체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가 기대된다.

나승병 투자유치단장은 “이번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관심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광양만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북아의 일류 기업도시로 진일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의료, 주거, 레저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GFEZ 신덕지구



GFEZ 신덕지구는 교육, 의료, 주거, 레저 등의 쾌적한 외국인 정주환경을 위해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시 광양읍 일원을 2020년까지 19.874km²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GFEZ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배후기능을 갖추고, 저렴한 산업용지 제공을 위한 산업단지도 함께 개발 중에 있다.

신덕지구는 5개 단지를 3단계로 개발하는데, 1단계로 2012년까지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하여 교육·의료·주거·레저기능을 갖춘 단지로 조성하고, 2014년까지 해룡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차금속·자동차업체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2단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광양복합물류유통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 개발하여 1차금속, 조립금속, 기술정보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3단계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용강배후단지를 개발하여 주거, 교육, 연구 등 복합기능의 단지로 조성하고, 신대·덕례배후단지를 교육, 주거 기능을 갖춘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덕지구는 이와 같이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순차적으로 5개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며, 단지별 세부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단지별 사업계획

구분	신대배후단지	해룡산업단지	광양세풍 일반산업단지	용강배후단지	신대·덕례 배후단지
단계	1단계 (2003~2012)	1단계 (2003~2014)	2단계 (2010~2015)	3단계 (2016~2020)	3단계 (2016~2020)
위치	순천해룡신대	순천해룡호두	광양시·읍·세풍	광양시·읍·우산	광양시·읍·덕례
면적	2,908km ²	1,606km ²	3,000km ²	1,884km ²	10,476km ²
기능	교육, 의료 주거, 레저	1차금속, 자동차	1차금속, 조립금속, 정보기술 등	주거, 교육, 연구	주거, 교육
사업 시행자	순천에코벨리	순천시, (주)대우건설	(주)광양개발	전남도, 광양시	전남도, 광양시 민자, 외투

신대배후단지

신대배후단지는 '07년 12월 조성공사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사업비 5,600억을 들여 주거용지 0.64km²(22%), 상업·업무·산업용지 0.14(5%), 학교용지 0.23km²(8%), 골프장

0.84km²(29%), 공공시설 1.06km²(36%), 총규모 2.91km²를 조성하게 되며, 11,730세대에 3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GFEZ내의 신대배후단지는 주거, 업무시설과 외국인 병원, 학교, 다양한 레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지내 18홀 규모의 골프장,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공원녹지, 전국 최초의 도시 순환형 생태회랑 등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외국 교육 기관과 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시설 확보를 위해 2012년 단지조성 완료 시기에 발맞춰 적극적인 유치를 펼치고 있다.

앞으로 신대배후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GFEZ의 배후단지로서 다양한 기능으로 근로자들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고,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와 신소재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유일한 연안습지인 순천만과 더불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와 연계된 관광과 휴양, 의료와 요양산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매제 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룡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는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일원을 1.6-06km² 규모로 2014년까지 사업비 2,958억 원을 투자·개발하여 1차금속, 자동차, 트레일러, 조립 금속 등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해룡산단은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을 지향하는 광양항에 인접해 있고, 국도 17호선과 울촌산단 우회도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2007년 7월 준공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전라남도 순천시는 마그네슘 판재와 ‘빌렛’을 지역내에서 공급하고, 이를 활용하는 부품소재산업을 집적시킴으로써 해룡산단을 마그네슘 미니클러스터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기반으로 신소재산업 육성 및 관련 제품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전남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와 협조하여 해룡산단을 산·학·연이 집적된 세계적인 마그네슘 공급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의 제품생산으로 인해 해룡산단에는 마그네슘 합금공장, 판재가공공장, 표면처리공장, 리사이클링공장 등 전후방 연관산업체가 들어서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는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 사업비 5,655억원을 투자하여 개발될 예정이다. 당초 국내유일의 식품전용산업단지인 광양식품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POSCO 광양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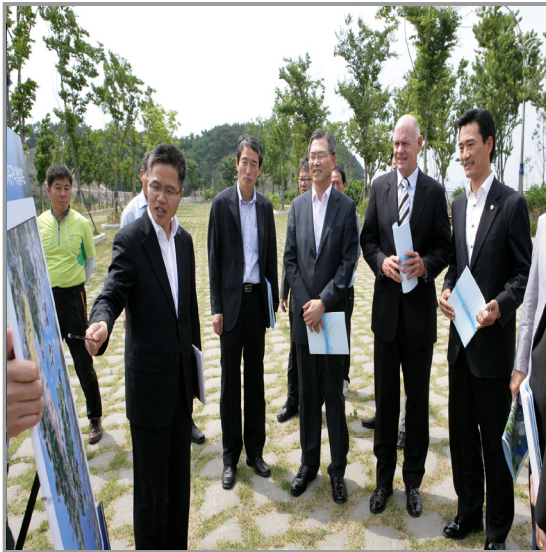
철 신우판공장 준공 등 주변산업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관련업종 산업 및 공장용지 적기공급을 위하여 식품전용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변경 개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일반 산업단지 변경 개발은 광양만권의 산업여건 개선 과 신규물동량 창출을 통한 광양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10년 8월 민간개발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MOU를 체결 하였고, 2011년 9월 지식경제부에서 개발계획(변경) 승인되어, 금년 하반기 실시 계획 등을 수립 후 착공하여 201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용강배후단지

용강배후단지는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일원을 2020년까지 사업비 998억원을 투자하여 주거용지(47%), 상업용지(3.5%), 연구개발용지(12%), 공원용지(16%), 관광위락용지(3.5%), 공공용지(18%) 등 총 1.88km² 규모로 상업, 주거, 연구 등 복합기능의 쾌적한 도·농 배후단지로 조성된다. 그리고 용강배후단지는 2003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단지로 3단계 사업지구이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기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대·덕례배후단지

신대·덕례배후단지는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일원을 2020년까지 사업비 16,231억원을 투자하여 주거용지(6%), 교육용지(0.4%), 상업용지(1.4%), 공원용지(24%), 관광위락용지(0.2%), 공공시설(6.7%), 기타 유보지 등 총 10.476km² 규모로 교육·주거단지와 시민휴게공간을 갖춘 자연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그리고 GFEZ 장래 환경보전 및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유보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호주 부동산개발기업 Ray White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 관심 (2012.05.26)



GFEZ 경관계획수립 보완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12.05.26)



GFEZ, 미국 기업인들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2012.05.24)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참석
(2012.05.21)



(주)스틸플라워 투자협약 체결
(2012.05.17)



3대 최종만 청장 퇴임
(2012.04.20)





발행일 2012년 06월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http://www.gfez.go.kr>

